

02

2025 | Vol.447

인쇄저널

Printing Journal 발행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팩컴코리아(주) 김경수 대표이사

이슈 | 학습교재 출판물의 인쇄 트러블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편집인이 만나다 | 팩컴코리아(주) 김경수 대표이사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초간편 주문배송



T-verse,
간편함을 고객의 일상으로!
그것이 가장 타라유통다운 생각

ORDER NOW

☎ 02-846-6001 🌐 b2b.tarapaper.com 📍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34 (상암동) 디지털큐브빌딩9층



10



14



20

Contents

2025 | Vol.447 **02**

04 기고 인쇄요금 현실화 시급하다 / 한영국

06 이슈 학습교재 출판물의 인쇄 트러블 유형별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이주영

10 편집인이 만난다 팩컴코리아(주) 김경수 대표이사

14 인쇄산업 뉴스 • 박장선 연합회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및 현판식 성황리 개최
• 2025년 제1회 정기이사회 개최
• 2025년 사업·재정분과위원회 개최
• 2025년 청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인쇄산업 현안 건의에 대한 조달청 입장 밝혀
• 서울시의회 및 서울지역본부와 설명절 나눔
• 디지털 윤전기 Truepress Jet520HD+ 판매 확대

19 경영법률상식 혹시 나에게도 조상이 물려준 토지가 있어 새해 복이 들어올까요 / 최재근

20 핫이슈 인쇄산업의 미래를 선도한다! 서울인쇄조합 2025년 사업계획(안)

22 중소기업 뉴스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시범 도입, 중기중앙회 건의 수용

24 정책뉴스 2025년 꼭 알아야 할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28 노무상식 근로계약 작성법 및 유의사항 / 이진우



한영국 소장
재단법인 대한인쇄연구소

인쇄요금 현실화 시급하다

2011년 폐지된 인쇄요금표 지난 15여 년간 적용

인쇄산업은 문화산업이다

인쇄산업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출판물만이 전부가 아니다. 제품의 포장과 설명서로 그리고 나아가 제품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핵심적 매체다. 실제 인쇄산업은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 수출의 숨은 조력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POP, K-FOOD 등 K-CULTURE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인쇄기술과 인쇄산업인들의 땀방울에 힘입고 있다.

인쇄산업의 이러한 중요성과 국제경쟁력을 고려할 때 인쇄물에 대한 우리사회의 가치평가는 적지 않게 인쇄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각급 공공기관에서 발주하고 있는 인쇄물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2005년도 작성된 조달청의 인쇄기준요금표를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대변한다.

조달청은 1975년부터 인쇄물 제작에 소요되는 원가를 인쇄업체와 공동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인쇄기준요금을 산정 발표하였다. 정부와 각급 공공기관은 조달청이 발표한 동 인쇄기준요금을 매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하고, 개별 인쇄물 구매 계약 때마다 예정 가격 산정의 기초로 사용했다.

시장경쟁촉진 등 여러사유로 인쇄기준요금제도는 2011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마지막으로 산정 발표된 2005년도 조달청의 인쇄기준요금표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2005년 당시 인건비 시급이 3,100원이었다. 2025년은 10,030원이다. 인건비가 지난 20년간 3배 이상 올랐는데도 인쇄산업계는 2005년 기준으로 인쇄요금을 받

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인쇄 관련 단체장 선거 때가 되면 출마자 다들 현실에 맞는 인쇄기준요금표를 만들겠다고 의욕적으로 공약(公約)을 하나, 시간이 지나면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그 공약(公約)은 또다시 공약(空約)으로 남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쇄기준요금제 도입 절실

필자는 2017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인쇄기준요금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용역에 직접 참여하고, 그 용역 결과물로 인쇄기준요금을 만든 적이 있다. 2022년에도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인쇄 대기업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다시 “인쇄물 적정가격 산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인쇄기준요금표를 만들어 정부와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인쇄단체에서 만든 인쇄기준요금표를 정부나 공공기관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 지 미지수다. 인쇄단체는 인쇄기준요금표를 정부나 공공기관의 인쇄조달 실무에서 적극 사용하도록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인쇄에 소요되는 지류, 잉크, 인쇄판(CTP) 등 각종 기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있으나 인쇄요금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기에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내수경기의 침체로 인쇄산업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인쇄기준요금제 도입이 절실한 이유다.

교육부는 인쇄 대기업을 통하여 국정교과서를 제작한다. 교육



작가 : Macrovector
출처 : Freepik

부는 국정교과서 제작에 관한 법령상 인쇄가격을 정할 때 공인된 2개이상의 회계법인이 작성한 인쇄원가를 기초로 가격을 정한다. 이때 교육부의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은 국정교과서를 인쇄납품하는 기업의 원가 데이터를 활용함은 물론이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온다. 정부는 왜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인쇄물 조달에 있어서만 원가계산용역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할 이유가 있는가?

인쇄업계는 지금 과당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경쟁은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나, 정부는 과당경쟁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해소할 책무도 있지 않는가? 가뜰이나 디지털화에 따라 공공 인쇄물 발주가 줄고 있어 중소인쇄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을 정부가 모른채 해서는 아니된다. 정부는 교육의 국정교과서 인쇄시 적용되는 원가용역에 결과에 따른 인쇄가격결정방식을 모든 공공 인쇄물조달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인쇄단체들도 숙원사업인 인쇄기준요금제도가 공공 인쇄물조달 전 분야에 걸쳐 도입, 활용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인쇄업계의 자구책으로도 한계가 있어

인쇄업계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나 기계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인쇄현장에 젊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인쇄 기장의 평균나이는 55세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품질과 생산량에도 문제가 많은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새로운 인쇄 방식을 통해 우리 회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인쇄를 첨단 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인쇄산업이란 독립된 하나의 기업군을 형성하나 역사, 교육, 문화, 산업, 정보, 출판, 신문 등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산업이다. 인쇄물은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 가장 위대한 발명품중의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를 비롯하여 인류의 인쇄술 역사에서 당당히 한 획을 그은 바 있다. 그래서 1992년 9월 24일 유엔에 가입할 때 우리나라 상징물로 ‘월인천강지곡 인쇄동’을 기증한 바 있다.

우리나라 인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인쇄업체 수는 17,000여 개사로 종업원 수 7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출판물이나 인쇄물은 멀티미디어에 자리를 내주고 있으며, 교과서, 참고서 시장 인구절벽으로 부수가 줄어 들어 적정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인쇄기업의 채산성 또한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인쇄산업계에는 과다한 시설 도입으로 과당경쟁상태이며, 인쇄산업은 또한 계절산업으로 가을부터 몇 달간 물량이 확보되고, 봄부터 여름까지는 비수기로 고전하고 있다.

인쇄단체 중심으로 스스로 인쇄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폐지된 인쇄기준요금제도가 현실에 맞게 재도입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미래 먹거리를 우리 인쇄인 스스로 창출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학습교재 출판물의 인쇄 트러블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이주영 연구원 |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출판인쇄학과 (마더텅 연구원)

1.연구목적

펜데믹으로 겪으면서 우리는 생활에서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배달의 민족, 쿠팡 등 우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주문해오던 것들이 온라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같은 교실에서 단체로 생활하면서 교과 교육과 사회성, 친구 관계 등에 있어서 서로 부딪히면서 배워가는 교육에서 학생 각자의 집에서 테블릿, 노트북 등으로의 비대면 수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펜데믹 영향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교재)도 기존의 종이교과서(교재)에서 빠르게 디지털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 비대면과 신 교육과정의 변화로 점차 학습 교재의 종이 인쇄물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학습교재 출판물의 제작 시 발생하는 트러블의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작 시 발생하는 트러블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쇄사와 출판사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사고유형

2020년부터 2024년 1/4분기까지 본인이 근무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공정별로 분류 정리하였다. 발생한 내역을 보면 데이터 관련 24건, 출력 관련 18건, 인쇄공정에서 28건, 후가공 및 제책 39건, 기타 10건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경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고 건수는 더욱 많이 존재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몇가지 사례를 볼 수 있다.

포스트 프레스 사고 사례

판 기스로 인한 텍스트 삭제 사고	데이터 오류로 인한 텍스트 겹침 사고

프레스 사고 사례

블랭킷 불량으로 인한 화선부 소실	유화에 의한 뜬 더러움 발생

후공정 사고 사례

재단 사고 사례	정합 불량 사례

3. 연구 및 결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작하면서 정리한 자료 외 거래처를 통하여 2018년부터 2024년 1/4분기까지 학습교재 출판물 제작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트러블을 정리하였다. 정리된 내용 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현장 실무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실무자들의 요구와 인지하는 해결책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는 순위상관 계수를 이용한 검증 방법으로 검증의 과정을 거쳐 관리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설문조사에 들어갈 항목의 선정은 발생 빈도가 잦은 것으로부터, 인지하지 못하고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재료별, 공정별 항목으로 정리하여 현장 실무자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정별로 사고 유형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공정별	구분	조사 항목
데이터		데이터 오류, 편집자 실수, 검수 부족
프리프레스	인쇄판	사용량, 내쇄력, 흐름과 얼룩 발생 빈도, 스크래치 발생, 판면 잡티 발생, 치수 안정성, 인쇄판 잘림, 인쇄판 망점 확대와 축소
	용지	사용량, 물리적 특성 변화, 동일 Lot내에서의 특성 변화, 주름 발생, 지분 발생, 원단 오염장력 불균일, 접지부 터짐 발생, 용지의 물리적 특성 변화, 인쇄용지의 표면 코팅 불량
	잉크	사용량, 탱값에 의한 뜸김 발생, 광택 저하, 중첩 특성
프레스	인쇄	인쇄판에서의 판 더러움 발생, 전이불량, 인쇄 용지의 뒤비침 발생, 인쇄용지의 뜸김, 파일링, 유화, 잉크 날림, 롤러 탈막
포스트프레스	제책	정합 불량, 아지노 불량, 삼면 재단 불량, 중철 불량
	하트멜트	사용량, 접착력, 펼침 유연성, 터짐 또는 갈라짐
	기타가공	라미네이팅 불량, 박 찌기 불량

4. 결론

이와 같은 공정에서의 트러블 원인을 실제 현장 작업자들이 겪어왔던 내용을 조사함으로써 공정별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① Pre-press에서는 판 자체의 문제보다 출력소의 기기 관리와 판의 이동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Pre-press 부분에서 데이터 관리와 CTP 판 출력에 대한 관리 항목으로 검사단위는 데이터와 인쇄판의 각 대수별로 전수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세부 관리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관리 항목	관리 기준
판형/접지	인쇄, 제책의 형식에 맞게 대침이 되어 있는지 확인
문서 용지 크기	대침의 맞자락, 양면 확인
앞 물림/센터	기계별 판형 위치 확인
센서/컷오프	기계별 판형 위치 확인

관리 항목	관리 기준
편집 수정	수정된 데이터와 수정 원고와의 일치
원고 대조	데이터와 원고의 일치 여부
인쇄판 현상 상태	현상이 덜되었거나, 과 현상 부분의 유무 확인
잡티, 더러움	현상된 판의 이물질 여부 확인
판 굵힘	현상된 판면의 굽힌 자국의 유무 확인

② Press에서는 현장에서 가장 우선시하여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시행해야하는 항목으로 평가하였으며, 세부 관리 항목은 윤전인쇄와 매엽인쇄로 구분하여 자주 검사를 실시하며, 수시로 시료를 채취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관리를 시행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윤전인쇄 항목

관리항목	관리기준
작업 전표 대조	●용지지종(규격), 잉크(아트/중질), 제책방식(무선/아지 노/중철)등 작업사양을 작업전표와 대조, 확인 ●책 SIZE 확인 ●인쇄부수 확인
견본 대조 검사	●인쇄물 1부를 발췌하여 페이지 배열을 확인 ●수정자 수정 유/무를 확인 ●절수(규격)를 작업전표와 대조하여 확인
색상 및 기능맞춤	●견본에 준한 색상으로 색 농도를 맞추고 견본이 없을 경우 표준 컬러바에 준하여 작업 ●4원색 기능맞춤과 앞뒤 일치여부를 확인
품질검사	●스크래치 및 건조상태 확인 ●망점 뜸김, 날림 확인 ●바탕더러움, 글자 깨짐, 잡티, 판기스 확인 ●잉크 비산, 세척액/물/오일 떨어짐
접지 상태	●뜸김, 터짐, 찌침 없이 재단이 양호한지 확인 ●접지선과 일치여부를 확인 (※ 특히 중철 가운데 대수 터짐 확인) ●접지 칼 상태를 확인(아지노 작업 시 주의)
스티커	접힘 유무 등 접지 추림이 잘 되었는지 확인
인쇄물 묶음	인쇄 시작 시, 기계 트러블 발생 후 재가동 시, 브랑켓 세척 후 OK된 인쇄물 1묶음은 번호 표기후 별도 관리하여 검사 후 검사 완료 표기
견본 관리	견본인쇄물은 묶음(덩어리)당 상/중/하로 1장씩 빼서 검사한 후 견본 표기해서 관리
인쇄 부수	작업전표의 인쇄부수 대비 실제 생산된 수량을 확인

매업인쇄 항목

관리항목	관리기준
작업 전표 대조	•용지지종(규격), 잉크(아트/중질), 제책방식(무선/아지 노/중철)등 작업사양을 작업전표와 대조, 확인 •책 SIZE 확인 •인쇄부수 확인
견본 대조 검사	•인쇄물 1부를 발체하여 페이지 배열을 확인 •수정자 수정 유/무를 확인 •절수(규격)를 작업전표와 대조하여 확인
색상 및 기능맞춤	•견본에 준한 색상으로 색 농도를 맞추고 견본이 없을 경우 표준 컬러바에 준하여 작업 •4원색 기능맞춤과 앞뒤 일치여부를 확인
품질검사	•뒤문음 및 건조 상태 •망점 뜯김, 날림 •바탕더러움, 글자 깨짐(블랭킹 손상), 잡티, 판기스 •잉크 비산, 세척액/물/오일 떨어짐 •용지 터짐, 주름 확인 •앞 물림, 옆 기능맞춤 확인 ※ 최소 300부 단위로 1부씩 발체하여 자주검사 실시
인쇄 완료된 마지막 3장	후면 백지사고 방지를 위하여 완료된 인쇄물 마지막 3장을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부적합 인쇄물 혼입	•색상, 핀트 맞춤용 인쇄물은 파지로 분류 처리 •휘더 급지 불량 시 빼놓은 인쇄물을 폐기 •각 파켓트별로 손지, 견당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 특이사항이 있을 시 물류 이동표에 기록하고 전달
견본 관리	견본 인쇄물은 원고와 동일한 부분에 매직으로 표시하고 견본 꼬리표 제작
인쇄 부수	작업전표의 인쇄 부수 대비 실제 생산된 수량을 확인

③ Post-press에서는 제책, 정합 불량, 아지노 제책 불량, 삼면 재단 불량, 중철 불량, 핫 멜트에 의한 사고, 핫 멜트의 접착력, 펼침 유연성, 제책용 핫 멜트의 터짐 또는 갈라짐과 엠보싱, 박 등의 표면 가공에서 발생하는 트러블 조사를 하였다. 이와 같은 항목을 우선으로 관리 항목을 채택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손실도 줄일 수 있으면서 효율적인 공정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관리항목	관리기준
정합 작업 전표	작업 전표의 품명, 사양, 특이사항 파악
정합 페이지 순서	접지물 페이지 순서 확인
부속물 접지방향	4p 접지 방향을 작업지시서 및 견본(원고)과 대조 확인
접지	접지 구김, 뒤문음, 스크래치, 연결 페이지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
무선 작업 전표	작업전표를 숙지(작업형식파악: 무선, 아지노, 합본 등)
무선	•표지, 본문, 면지, 판권, 저자 등이 일치하는지를 작업지시서(작업전표, 배열표) 및 견본(원고, 가제본) 과 1:1대조하여 확인(페이지 확인, 견본 대비 색 일치여부 확인) •접착상태를 확인(풀 구멍, 본문 풀 흡수 상태)
감지 장치	•표지 카메라 위치 및 영점 이상 유/무를 확인 •운전 중: 표지카메라, 중량감지기 에러 발생 유무 수시로 확인
섞임 확인	표지 상/하 돌아감, 표지 섞임 유/무를 확인
운전 중 품질 상태	* 운전 중 원제품을 수시 발체하여 자주검사를 실시 •표지/내지 바림, 학생/교사용 섞임 유/무 •접착 상태(책등 풀 문음, 책등 터짐, 풀 구멍, 면지 접착 상태, 본문 낱장 빠짐 유무)확인 •재단 상태(모서리, 좌/우/상/하 편중재단, 본책보다 사이즈 작은(책속의 책)들어갈 경우 본문 찢김, 부스러짐 유/무 확인)확인 •본문 페이지 확인(추림 상태, 연결 페이지, 대수 빠짐/중복/섞임 이상 유/무) •책 펼침성, 유연성 등 확인

이번 연구를 통해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상기와 같이 제작 공정 시 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전 예방을 위한 제작사고 관리 방안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업무를 보면서 발생하는 트러블에 대한 데이터 확보를 통해 더욱 진보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연구를 통한 관리 방안이 제작 공정 시 발생하는 트러블을 예방하여 상생하는데 조금의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동상표 HI-PRINTING

중소기업
공동상표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중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하나로 중소기업제품의 품질을 협동조합에서 보증하여 현재 지명경쟁·제한경쟁입찰 형태로 많은 수요 기관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HI-PRINTING을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 제한 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에 참가가 가능해 일반 입찰보다 낙찰 가능성 UP!
- 물품분류번호별 10회/각 20억원까지 가능
(소액수의계약 : 물품분류번호별 2회 / 낙찰 시 1회 / 1억원 한도)
- 안정적인 수익 창출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HI-PRINTING 사용신청서 1부
- 서울인쇄조합에 제출
- ※ 기존 '직심' 가입자는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서울인쇄조합 사업홍보팀
Tel. 02-334-8631(내선 241)

인쇄산업의 미래는 수출이다 팩컴코리아(주) 김경수 대표의 화두를 듣다

작금 인쇄산업계 화두는 공공시장에서의 제값받기다.
인쇄기준요금 도입,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제도 개선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게 전부일 수는 없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이 그러하듯 글로벌 경쟁력이 척도가 되어야 한다.
과당경쟁과 수익률 악화를 겪고 있는 인쇄산업계에는 더욱 그렇다.
인쇄분야 수출은 2000년대 전후 불이 일었다 꺼졌다.
그때 창업 때부터 수출시장을 목표로 뛰고 있는 인물을 찾아 나섰다.
팩컴코리아(주) 김경수 대표이사다.

Q 바로 물겠다. 왜 인쇄산업계도 해외로 나가야 하는가?

A 국내 인쇄시장은 10여조 원 규모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과당 경쟁이 현실이다. 인쇄수요가 큰 기관이나 기업과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 성장에 한계가 있다. 디지털 이야기 많이 하지만 세계 인쇄시장은 대단히 큰 시장이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Smithers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인쇄시장은 8,740억불, 한화로 1,000조원이다. 유럽만 해도 작년에 영국은 4.6%, 독일은 2.8%, 특히 프랑스는 16.3% 증가하였다. 고 김우중 회장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는데, 세계 인쇄시장 또한 개척해 나갈 여지가 무한하다. 거래관계도 국내와 달리 갑을의 종속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십이다. 더하여 최근 K-Culture나 제조업 생산기술 등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얼마나 상승되어 있는가, 이런 점을 인쇄산업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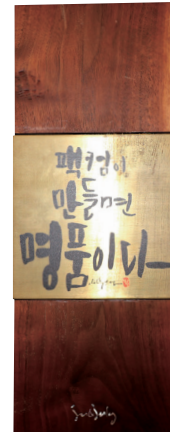
Q 말이 쉽지 해외시장 도전, 더욱이 계약을 따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

A 해외주재원 근무경험이 있어 팩컴코리아는 창립 때부터 수출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유럽과 미국은 물론 남아공, 노르웨이, 멕시코 등 각국의 북페어를 끊임없이 찾아다녔

다. 가보면 누군가 잠재고객을 만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팩컴을 홍보하고, 교류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왔다. 무역거래는 신뢰다. 인쇄물 수출은 더욱 그렇다. 일반제품 수출과 달리 인쇄는 주문마다 전혀 다른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내야 한다. 그만큼 인쇄수출에는 신뢰를 형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만큼 한 번 신뢰가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 특성도 있다. 인쇄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다. 팩컴은 국내회사 최초로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G7 Master Printer 인증,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PSO(Process Standard for Offset) 인증을 받았다.

Q 역시 인쇄수출 최고의 전문가이시다. 생생한 노하우를 더 듣고 싶다.

A 상식이지만, 언어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양성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쉽게도 인쇄업계에 인쇄 전문 통역가가 부족하다. 정부나 인쇄단체 차원에서 대책이 있기를 바란다. 더 좋은 것은, 주요 국가에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 시장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여 해외 고객과의



김경수 대표이사장실 앞에는 팩컴코리아 사명 '팩컴이 만들면 명품이다'라는 사명패가 걸려 있다.



소통과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팩컴이 미국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2곳에 지사를 두고 있는 까닭이다. 해외 특히 유럽 시장은 노동, 친환경, 안전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 이에 따른 인증과 라이선스 취득은 필수다.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해외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다.

Q 상업인쇄물 수출 1위인데, 이제 팩컴코리아 이야기를 해보자.

A 1999년 설립 이후 인쇄·출판·제본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팩컴코리아의 경쟁력을 굳이 말한다면 어떤 형태의 주문이라도 인쇄출판의 기획, 디자인에서 프리프레스, 인쇄, 제본, 후가공을 거쳐 포장 및 배송까지 생산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토털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고객에게 최적의 퀄리티와 납기를 보장한다고 자부한다. 국내 물론 루이비통, Harper Collins, BMW 등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가 팩컴의 고객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Q 마디마디가 귀하다. 30년 넘게 인쇄업계에 종사해 왔는데, 인쇄가 원지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싶다?

A 일반인들이 '인쇄'라고 하면 명함이나 책자, 신문과 같은 생활형 인쇄물을 떠올리지만, 전자제품, 건축, 자동차 등 산업 전 분야에 인쇄가 안들어가는 곳이 없다. 이점에서 인쇄산업 통계체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패키징 인쇄는 제품보호와 정보제공을 넘어 브랜드가치를 높여 상품의 외적 매력을 극대화한다. 사람이 화장을 통해 인상을 돋보이게 하듯, 인쇄는 제품을 완성하고,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유명제품의 카탈로그가 허접한 경우가 있는가?.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면 인쇄는 산업의 화장품이다. 디지털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쇄는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산업의 인프라다. 우리가 인쇄를 이렇게 가치 있게 보고 프레임링 할 때 젊은이들도 이 분야에 온다.

Q 딱딱한 이야기도 하자, 인쇄산업관련 정부 정책에 지적할 점이 있다면?

A 출판과 인쇄의 관계다. 양 산업은 본질적으로 다른 산업이다.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 추진해서는 안 된다. 출판은 창작과 콘텐츠 유통이 중심인 문화산업이며, 인쇄는 과학과 생

산기술이 중요한 제조 산업이다. 출판은 저작권 보호와 창작 지원이 필요하고, 인쇄는 자동화, 기술 노하우 축적, 수출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실은 인쇄는 문화산업이다 해서 문화부에서 담당하고, 5년마다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인쇄산업계의 당면한 애로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생하고도 대담한 국가적 시책이 충분히 담겨있다고 말할 수 없다. 요즘 인쇄산업계 현안논의가 많은 데 그 출발은 인쇄와 인쇄산업에 대한 정의부터 새롭게 하는 데 있다 싶다. 반복이지만, 정부에서 인쇄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 가치와 시장의 재발견에 기초한 육성전략과 정책이 있기를 고대한다.

Q 크게 공감한다. 그런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적 지향점을 말한다면?

A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제조 강국이다. 반도체, 자동차와 선박 등 주요 산업에는 글로벌시장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능했다. 우리는 직지 등 빛나는 인쇄기술의 역사와 전통이 있다. 한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

이 반드시 탄생해야 한다. ‘인쇄산업’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국내 인쇄산업계는 비슷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들이 절대다수다. 이러한 시장구조에서는 큰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쇄물 생산과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디지털 대전환(DX)을 추진하고, 아울러 국내를 넘어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이 등장해야 한다. 정부도 이런 큰 꿈을 꾸고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았으면 한다. 그때 인쇄산업계 전반의 혁신이 동반되리라 믿는다.

Q 중요한 지적이다. 국내 인쇄업체가 꼭 챙겨야 할 사항을 하나 든다면?

A 인쇄는 기술집약적산업이고 또한 한 대에 수십억을 호가하는 장치산업이다. 오프셋인쇄, 그라비아인쇄, 플렉소 인쇄, 최근 디지털인쇄까지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솔직히 수십억원을 들여서 도입한 장비를 100% 활용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그저 수지 맞추고 이윤 좀 남으면 되는 식의 경영이 많지 않나?. 유럽에서는 인쇄 전문가, 특히 기장과 같은 직군은 고도의 전

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인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평균 연봉도 20만 유로에 이를 정도로 대우가 우수하다. 국내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근원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숙련된 인재양성과 채용개선이 중요하다. 닭과 달걀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겠지만, 전문인력에 대한 채용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팩컴에는 30년 이상 함께 하는 보배 같은 직원이 여럿이 있다.

아울러 인쇄산업계 내부의 시각도 되돌아볼 여지가 있다. 시혜를 바라거나 또는 과당경쟁 하지말자 등 비현실적 이슈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과잉투자된 생산시스템을 조정할 여지는 없는지? 기술개발이건 산업분석이든 연구개발 투자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해외진출 등 신규 시장개척 등 진짜 중요한 논의는 묻혀있지 않은지 말이다. 앞에서 인쇄산업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급 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이 대목에서 인쇄산업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아갈 리더가 나와야 한다. 인쇄산업 전반을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안목과 담대한 추진력을 갖춘 리더 말이다. 진정 나올 때도 됐다.

Q 마지막으로 팩컴코리아의 비전이랄까 목표를 듣고 싶다?

A 1999년 팩컴코리아를 창업했다. 그리고 2001년 300만불을 시작으로 2003년 1,000만불, 2005년 2,000만불 수출을 찍었다. 그래 10년 안에 1억불 수출을 할 수 있겠다고 자신했다. 그런데 중국의 2001년 WTO 가입 이후, 낮은 인건비와 대규모 생산 능력을 앞세운 중국 인쇄기업들과 부딪치면서 팩컴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근래 국내 아동도서 상당수가 중국에서 인쇄해 오는 현실이다. 중국기업의 이해할 수 없는 30~40% 넘는 저가 공세는 단순한 재고떨이 가격전략이 아니다. 경쟁자 몰아내기다. 이런 환경에서도 팩컴은 지속적으로 2,000만불 수준의 수출실적을 이어오고 있다.

Q 1억불의 꿈을 이루기 위한 미래 전략이 있다면?

A 글로벌 인쇄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틈새시장은 있다. 유럽이나 미국은 제조기반이 많이 약화되어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비가 높다. 그래 고품질 기술력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동남아나 남미는 인쇄 설비를 보유한 현지 기업 자체가 부족한 점을 기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팩컴코리아(주) 사옥

회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변화를 기회로 보고 있다. 기술안보, 정보안보의 부각에 따른 신뢰문제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내기업에게 분명한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인쇄물은 무관세 품목이나 상황에 따라 이것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인쇄분야도 중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 팩컴의 올해 매출목표를 작년보다 30% 이상 높이 설정했다. 많이 성원해 주기 바란다.

인터뷰 끝자락에서 회사명 팩컴(PACOM)의 작명배경을 물었다. 인쇄업체 초기에 미국과의 거래상 태평양을 자주 건너다니 다 태평양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잇겠다는 뜻으로 지었다고 한다. 회사명만큼이나 김경수 대표의 시선은 높고 넓었다. 그만큼 우리 인쇄산업계가 수입해서라도 경청해야 할 대목이 많았다. 팩컴코리아 1억불 수출의 꿈을 성원하면서, 해외수출이 새해 인쇄산업계 모두의 화두가 되기를 바란다. 그 발걸음에 고지를 향하는 산악인들의 말을 전한다. 눈은 게으르고 발은 부지런 하다고.



2023년 프랑크푸르트 북페어에서 해외 바이어와 상담을 하고 있다.



팩컴코리아가 그동안 수상한 수출의 탑



팩컴코리아가 제작한 명품브랜드 패키징 상품

박장선 연합회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및 현판식 성황리 개최



박장선 연합회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 식 현판식이 지난 2월 3일(월) 오후 5시, 조합 1층 다목적회의실 및 3층 제2회의실에서 각각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혜훈 전 국회의원, 김길성 중구청장, 옥재은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박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지를 표명했다.

개소식은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박장선 후보의 인사말, 내빈들의 축사, 현판 제막식, 그리고 지지자들과의 소통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박 후보는 인사말에서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해 조합의 발전을 이끌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회원사의 권익을 최우선

으로 하며,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박장선 후보는 오랜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연합회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며 강한 지지를 보냈다. 김길성 중구청장 역시 “서울 인쇄업계의 발전을 위해 박 후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는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또한 “인쇄산업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박 후보의 비전과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소식에는 업계 관계자들과 조합원들도 대거 참석해 박 후보의 출마를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박 후보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특히, 박 후보가 제시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공동 사업 확대 △청년 인력 양성 및 인쇄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의 공약에 큰 관심이 모아졌다.

행사 전반부에 진행된 현판 제막식에서는, 박 후보와 내빈들이 함께 현판을 공개하며 선거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후 인쇄업계의 당면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번 개소식을 통해 박 후보는 업계와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그의 활동이 인쇄업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연합회 회장 선거는 2월 24일(월) 연합회 총회에서 실시된다.

2025년 제1회 정기이사회 개최



조합은 지난 2월 11일(화) P호텔에서 2025년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조합 현안을 논의하고 의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52명 중 34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날 이사회는 △2024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2024년도 잉여금 처분(안) 승인 결의안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결의안 등 총 9개 의안을 채택해

의결을 진행했다. 9개 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합은 2025년 사업은 조합 수익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세우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상품 우선구매제도, 인쇄물 적정 가격 제도화 등 인쇄업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중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적인 수요저 감소와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올리지 못해 고통받아 온 우리 업계가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올 한 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조합은 2025년 한 해에도 조합 수익 극대화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2025년 사업·재정분과위원회 개최



조합은 지난 2월 4일(화) P호텔에서 사업재정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재정분과위원회는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앞두고 조합의 2025년도 사업 및 예산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중 이사장을 비롯

해 전준호 재정분과위원장, 황정혜 사업분과위원장, 임인영 조정분과위원장 외 위원 18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김윤중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병수 상무이사 2025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2025년 조합은 공동구매사업, 주차장 무인시스템 등 신규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장동,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 사업 시 의견 개진, 장애인기업 물품 우선 구매 제도 개선 협의, 인쇄물 적정 가격 산정,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MAS) 도입 등 조합원의 권익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서울시의 작업환경개선사업, 고용노동부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등 정부 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025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2025년 청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조합 청년위원회가 지난 2월 7일(금) 상상 캔버스 커뮤니티라운지에서 (주)투데이아트 박장선 회장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박장선 회장은 1987년 50만원을 가지고 상경해서 인쇄업계에 입문한 이후, (주)투데이아트를 지난해 기업 가치 6천억원의 국내 인쇄 분야 매출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키기까지의 과정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

어 가기 위한 인쇄 경영인의 자세와 차별화된 기업 경쟁력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청년 인쇄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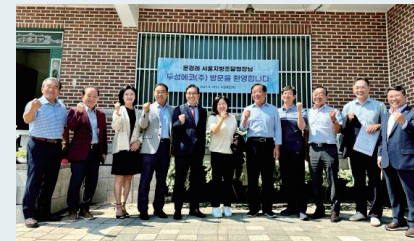
또한, 박 회장은 1997년 명진아트 설립 이후 선진 인쇄 기업의 벤치마킹을 위해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일본 등 수 많은 인쇄기업들의 현장을 찾아다녔던 일화를 소개하며 “이제 투데이아트 파주인쇄사업부

1, 2 공장은 유럽과 미국 뿐 아니라 하이텔 베르그 인쇄기를 사용하는 일본 2세 인쇄 경영인들과 일본 G7 엑스퍼트 인쇄 전문가들이 벤치 마킹을 위해 방문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공정 자동화 수준과 친환경적인 인쇄시스템, 탁월한 인쇄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참가했던 일본 전시회를 시작으로 미국을 비롯한 적극적인 해외 시장 마케팅을 진행, 세계 시장에 K-POP과 K-Culture를 전파하는 대한민국 대표 인쇄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100여 분 동안의 강연이 마무리된 뒤, 박 회장은 이날 강연에 함께 한 30여 명의 청년위원회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편안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선배 인쇄인으로서 앞으로 청년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5월 파주인쇄사업부 제2공장을 찾은 2세 인쇄 경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임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업 방향성을 설정하고, 경영자가 단호한 의지로 술선수범하면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던 박 회장은 “청년위원회가 개혁과 변화, 혁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인쇄업계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활기찬 업계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후배 인쇄인들과 격의없는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쇄산업 현안 건의에 대한 조달청 입장 밝혀



서울중소기업인간담회 참석자 단체 사진

조합은 지난 9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주관 ‘서울중소기업인간담회’

에서 인쇄산업 현안을 건의했고, 최근 조달청의 입장을 전달받았다. 조합은 공동사업 제품 ‘하이프린팅’의 공공기관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와 조합추천 소액수의 계약 확대를 요청했으나, 조달청은 구매 방법은 각 기관의 자율적 판단 사항임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여성기업 제품 의무 구매 시 특정 품목 편중 방지 및 편법 등록 단속 강화를 제안했으나, 조달청은 품목 선

정은 기관 자율에 맡기고, 입찰 가점 축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편법 등록 문제는 중소기업부에 재건의하도록 요청했다. 조합은 인쇄기준요금 폐지 이후 시중가 대비 50~70% 낮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금액 관리 마련을 요청했으나, 조달청은 기준요금제 재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조합은 공공조달 활성화, 인쇄물 가격 정상화, 공정한 구매제도 확립을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합, 서울시의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설명절 나눔



조합 김윤중 이사장은 1월 23일(목) 명동성당에서 열린 설맞이 떡국세트 전달식에 참석

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마련했으며, 800인분의 떡국세트를 전달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중소기업계의 온정에 감사를 표하며,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행사 중에는 중소기업계의 현장 애로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 이사장은 “인

쇄업계도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인쇄조합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합원사 화환 지원 제도

서울인쇄조합에서는 조합원사의 애경사(결혼, 장례 등) 및 사업장 이전 등 다양한 행사에 화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조합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 행사 일정과 내용을 조합 총무관리팀에 사전 접수 (최소 7일 전 신청 필수)
 - 문의 및 신청 : 조합 총무관리팀 (02-333-8631)
- 조합원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조합원사 변동

업체명	변동 전	변동 후	변동사항
(주)디자인콘	중구 퇴계로 30길 24, 지하1층 B112호(예정동)	종로구 이화장길 86-11, 1층(동송동)	사업장
(주)티앤아이미디어	마포구 월드컵로 87, 703호 (망원동, 마포로알프라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청초로 10, B동 2102호 (덕은동 지엘메트로시티한강)	사업장

부고

- (주)디자인콘 최이원 대표이사의 부친께서 1월 16일 별세하셨습니다.
- 대웅문화사 도옥생 대표의 모친께서 1월 25일 별세하셨습니다.

결혼

- 애드킨 강중혜 대표의 딸 수민양이 2월 9일(일) 루이비스웨딩홀 18층 다산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주)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디지털 윤전 인쇄기 Truepress Jet520HD+ 판매 확대 추세



(주)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의 고속 디지털 윤전 인쇄기 도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세계 3,000대 이상 판매된 모델이자 주력 모델인 Truepress Jet520HD+의 경우 국내에서도 23개 라인이 실제 가동 중이다.

최근에는 코레버출판인쇄(주)가 Truepress Jet520HD+를 도입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코레버출판인쇄(주)는 Truepress Jet520HD+가 오프셋에 필적하는 디지털 인쇄를 구현하는 동시에 빠른 속도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도입 배경으로 꼽았다. 더불어 야간작업을 최소화해 인건비 절감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에 최적화된 디지털 윤전 인쇄기

Truepress Jet520HD+의 경우 친환경 고속 디지털 윤전 인쇄기로 최대 분당 150m, A4 단면 기준으로 분당 2,020매의 인쇄가 가능하다. 이처럼 빠른 속도를 보장하면서도 오프셋 인쇄기를 뛰어넘는 색역대와 뛰어난 품질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 낱장 디지털 인쇄기 및 오프셋 인쇄기의 운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 1부에서 1,000부까지의 인쇄물에서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대량 인쇄 시에도 상황에 따라 오프셋보다 경제적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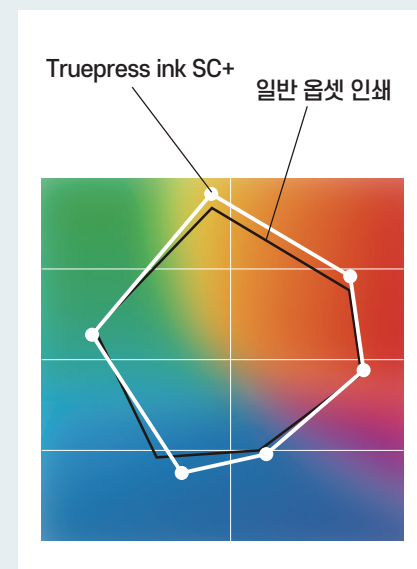
디지털 전환은 우리 업계의 숙제다.

Truepress Jet520HD+는 스크린 사의 다른 후가공 장비와 UI를 공유해 작업 효율성을 높여 기존 수일이 소요되던 작업을 단 하루 만에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전략 수립에 장점이 있는 것이 (주)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의 설명이다.

지난해 동 장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주)경인디앤피 안경만 대표는 “Truepress Jet520HD+를 도입하면서 분당 150미터 인쇄라는 놀라운 속도와 최고의 정밀도를 제공하면서 대규모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급변하는 시장에서 더 나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무엇보다 고객 만족 측면에서 강력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

다”고 말했다.

(주)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관계자는 “Truepress Jet520HD+는 고객사들에게 최고의 효율과 만족도를 제공하는 인쇄장비로 현재 문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스크린 사의 다른 후가공 장비 등과 손쉽게 연동이 가능해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는 인쇄업체에게 최적의 장비로 평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스크린 jet520hd+와 오프셋 인쇄기 색역대 비교

혹시 나에게도 조상이 물려준 토지가 있어 새해 복이 들어올까요



최재근 | J&K 법률사무사 대표
서울인쇄조합 자문변호사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조사부를 작성하였고, 그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소유권자가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그런데,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이름이 우리 선친의 이름과 같아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우리 선친 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나,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은 1968년경 처음 시행되었기 때문에, 1970년 이전의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토지조사부나 토지대장에 기재된 이름이 우리 선친의 이름과 같아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법원에서 동일인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 토지 중 미등기된 토지는 얼마나 될까?

최근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토지 중 미등기된 토지는 544㎢로 여의도의 약 188배,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에 해당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론 22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미등기 사정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으나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복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말한다.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은 최초 일제시대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토지조사부는 1912년경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토지 소유자는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수십명에 달하기 때문에, 상속인 전부 상속등기를 하여야 때문에 소유권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명보극장 옆에 있는 2평의 토지가 미등기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토지를 매수하여 옆에 있는 토지와 같이 개발하고 싶은 사람이 위 2평의 소유자를 찾아 달라고 의뢰하였다면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소유자가 있다.

미등기된 토지 역시 소유자가 있다. 다만, 미등기된 토지는 소유자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1912년경 일제시대

명보극장의 옆 2평의 현재 시세는 약 3억원이고, 상속인은 21명이나 되었다. 어렵게 명보극장 옆 2평의 소유자에 대해 법원의 재판의 통해 확인하였고, 그 토지의 소유자는 이미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21명이 되었다. 21명에 대해 위 토지의 지분대로 매매를 요청하였는데, 가격이 협상이 되지 않아 결국 매매는 성사되지 못했다. 21명 중 대부분 시세에 대해 매매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일부가 시세보다 2배 높게 매수를 해 달라고 하여 아직까지 매매를 협의 중에 있다.

혹시 내 조상 중에 제법 많은 토지가 있었는데, 못찾고 있다면 찾아보길 바란다.

서울이나 경기도는 제법 토지가격이 높아 조상땅을 찾으면,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여행을 갈 수 있는 여행비용이 나오게 된다. 특별히, 먼저 찾은 비용을 주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조상땅 것을 자문해 주는 변호사는 대부분 무료로 대행해주고, 나중에 토지를 찾아서 환가가 되면 이 환가비용에서 자문료 또는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게 때문이다.

J&K 법률사무사 Tel. 031-592-6699

인쇄산업의 미래를 선도한다! 서울인쇄조합 2025년 사업계획

01 인쇄인 권익 보호 및 조합원 지원 강화

도심재정비 관련 인쇄업 생존권 보호 활동 추진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지구 재정비 계획이 기존 계획과 달리 공원, 오피스, 아파트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인쇄업체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 조합은 공공임대사업장(700호)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극 대응하여 인쇄업체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세운지구 내 인쇄클러스터 재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구 오장동 일대 재정비계획이 2025년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인데, 이는 인쇄업체의 새로운 입지를 조성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조합은 중구청과 협력하여 인쇄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물 우선구매제 개선 추진

공공기관은 장애인 생산물 우선구매제에 따라 일정 비율(1% 이상)을 장애인 기업 및 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이 중 인쇄물이 18.5%를 차지하며,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인쇄물 발주가 장애인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조합은 특정 품목의 구매 비율 한도(10%) 설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편법 하청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인쇄물 적정가격 제도화 및 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 도입 추진

조합은 한국물가협회 물가자료에 인쇄기준요금을 게재하고 있으며, 이를 공공기관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조달청과 협의 중이다. 또한, 최저가 입찰로 인한 가격 경쟁 심화를 막기 위해 조



달청 MAS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이를 위해 2025년 2월 조달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상반기 중 조합원사 중심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인쇄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을 통해 IoT 및 자동화 시스템 도입, 서울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사업 참여로 인쇄업체들의 근무 환경 개선, 인쇄업체 간판 및 외관 정비를 추진하여 인쇄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 인쇄업체들은 독립적인 안전관리자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조합은 노동부 지원을 받아 공동안전관리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

년에는 17개 조합원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 및 위험성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02 조합 수익 증대 및 운영 활성화

공동사업 확대 및 조합 수익 증대

단체수의계약을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활성화하여 조합원사의 수주 기회 확대시킬 계획이다. 공공기관 대상 공동상표 'Hi-Printing'을 적극 홍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인쇄 원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조합원 원가 절감 및 수익 창출을 도모할 것이다.

국내외 인쇄산업 전시회 참가 및 판로 개척

K-Print 2025(KINTEX, 8월 20~23일)에 참가하여 조합원사 인쇄물 홍보 및 최신 기술 전시하고 중국 북경 인쇄박람회(China Print 2025, 5월 15~19일) 참관단 구성해 해외시장 개척 기회를 조합원사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 외 의류, 의약품, 식품 등 인쇄물 수요가 높은 산업 전시회에 참가하여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쇄산업 관련 대연합체 구성 및 협력 강화

인쇄 서비스, 제지, 장비, 잉크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언론사 등과 함께 '인쇄산업발전 대연합' 구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2030 인쇄산업발전전략' 보고서 작성하여 인쇄산업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원 및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및 정책 당국과 협력하여 인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통과 참여로 조합 활성화

인쇄산업 경영자 세미나(6월 개최, 1박 2일)를 개최하여 조합원 간 교류 및 협력 강화하고 원로 인쇄인 초청 행사(5월)를 통해 선배 인쇄인들과 소통 및 업계 발전 논의할 계획이다. 인쇄산

업 역사 사진 공모전 및 전시(서울인쇄센터 내 상설 전시) 및 조합 캘린더 제작(5,000부)하여 인쇄문화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할 계획이다.

미래 인쇄산업 선도

청년위원회 운영을 통해 업계 미래 리더 육성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하고 인쇄학과 학생 해외 연수를 지원하여 인쇄 산업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지원을 도모하고자 비자 발급 절차 개선 및 적응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03 서울인쇄센터 운영 혁신

맞춤형 인쇄 전문 교육 및 취업 연계

- 인쇄 디자인 및 장비 교육 : 연 15회, 총 360시간 교육 진행
- 인쇄 소공인 시제품 및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 : 취업 희망자 및 창업자 지원
- 인쇄 취업 박람회 개최 : 온라인 상시 운영, 오프라인 연 1회 개최

제16회 서울인쇄대상 시상식 개최

인쇄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인쇄 작품을 선정·시상하여 인쇄업 종사자들의 노력과 열정을 격려하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인쇄물 전시, 체험 행사 등을 통해 인쇄산업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대중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최신 공용 장비 도입 및 운영 인력 채용

최근 전문 운영 인력을 새롭게 채용하고, 최신 인쇄 장비를 도입하여 한층 강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쇄산업 종사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첨단화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상기 계획(안)은 2025년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총회에서 최종 승인일 거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임기근 조달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2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5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시범 도입 중기중앙회 건의 수용

조달청 '새해 업무계획' 발표, 선박 등 '물품제조'

계약시에도 '단품 물가조정제도' 시범 적용

원자재값 급등시 신속히 반영 공공 공사비 현실화도 급물살

조달청이 올해부터 물가 상승 등 상황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해 정당한 대가를 중소기업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소기업중앙회가 그간 건의해 온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가 정부의 업무계획에 반영되는 쾌거를 올렸다는 평가다. 앞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민간계약 수준의 납품대금 연동제가 가동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지난 2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선박 등 물품제조계약시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 낙찰률 최대 3.3%포인트 상향 등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계약에선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에 의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2023년 10월 도입됨에 따라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마련돼 중소기업의 부담이 한층 완화돼 왔다.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의 가격이 10% 이상 상승할 경우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계약서에 미리 명시함으로써 별도의 대금 인상요청 및 협의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의 발주 건은 수요기관의 성격이 아닌 조달청 구매위탁 여부에 따라 계약건별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여부가 상이하면서 중소기업계 혼란이 가중돼 왔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직접발주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지만,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조달청 위탁 발주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간소화

이 때문에 중기중앙회를 필두로 중소기업계는 조달청의 계약금액조정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지적을 해왔다. 우선 중기중앙회는 기존 법령 손질의 필요성부터 제기해 왔다. 기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후 가격이 3% 증감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조정을 위한 요건(원가분석 등)과 증빙이 매우 까다롭고 조정을 하는 기간이 길고 비용부담이 너무 커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작동되지 않았다.

특히 공사계약에는 단품물가조정제도가 존재하나 물품계약에는 이 제도가 없어서 개별 원자재가 급등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되지 않는 어려움도 존재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23년 12월에 개최된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조달정책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의 계약금액 조정

제도는 유지하되, 물품 단품물가조정제도 형태로 민간의 납품대금연동제 조정틀을 준용해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한 바 있다.

임기근 '중소가 공공조달 주역'

이번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에는 임기근 청장의 남다른 중소기업계 관심이 반영된 걸로 보인다. 지난해 1월 임기근 조달청장의 취임 후 첫 현장 행보 역시 중소기업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중기중앙회를 제일 먼저 방문했었다.

조달시장에선 중소기업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기준 208조원의 공공조달시장 중 64.6%인 135조원이 중소기업을 통해 납품됐고, 전체 조달기업의 99%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매우 크다.

지난해 6월 19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도 임기근 청장은 "누가 뭐래도 공공조달시장의 주인공은 중소기업"이라며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조달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관심은 실제 조달정책 개선에서도 빛을 발했다. 중기중앙회 간담회에 앞서 6월 17일 조달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건의해 온 내용들이 다수 반영하기도 했다.

반영된 과제들로는 △획일적·징벌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선진화 △과징금 적용 확대로 기업 재기 지원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로 인증 부담 완화 △MAS 중간점검 개선으로 서류 작성 부담 경감 등이었다.



지난해 6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임기근 청장(왼쪽 두번째)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세번째)이 중소기업 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달수수료 최대 20% 인하 추진

한편 조달청은 업무계획을 통해 민생조달을 통한 경기회복 추진과 함께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전략조달과 차세대 나라장터 안정적 운영 및 공공조달법 제정 등 2대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 중심엔 올해도 중소기업계 육성 지원이 최대 화두다.

임기근 청장은 "올해를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빛'과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기본에 충실)의 시즌2로 삼고 체감·현장·행동·속도의 업무추진 방식을 체질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해 초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빛'과 '백 투 더 베이직'을 조달업무의 핵심 목표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조달청은 먼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민생조달을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5000억원을 집행하고 조달 수수료를 최대 2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단품 물가조정제도 도입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 등 공공조달 제값 주기를 추진하고 조달기업 보증수수료 최대 50% 인하와 신인도 정비로 조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조달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기존 조달시장에는 없던 반력로봇 등 첨단 융복합제품을 발굴 계약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유연한 입찰 방식을 최초로 도입해 고가실험장비 등 신산업 분야 제품의 시범 사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출처: 중소기업뉴스)

2025년 꼭 알아야 할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임금·근로시간

2025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0,030원(24년 9,860원), 일급 환산액 80,240원(8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6,27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55

통상임금 범위 확대

- 재직·근무일수 등 조건부지급 상여금이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해당(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24.12.19.)

통상임금 확대범위 예시
① (재직 기준) 추월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② (근무일수 기준)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이 산정기준이 수당 또는 급여>
•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 대법원판결 선고일('24.12.19.) 이후 산정하는 통상임금부터 법리 적용
- 참고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 소식 → 보도자료 → 언론보도해명('24.12.19.)
-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상습 임금체불 제재 강화

-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1년간 ①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 5회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이상인 경우
-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및 출국금지
- 근로자는 체불*로 인한 손해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①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②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③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25.10.23시행)
-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사업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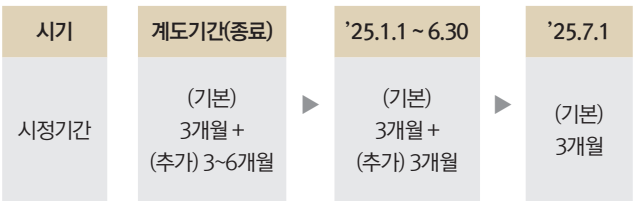
- 가입자 1명당 최대 27만 3천원 사용자 부담금 지원(사업별 30명 한도)
- 2025년 가입한 사업장은 가입시부터 3년간 기금운영 수수료 0%로 감면

푸른씨앗이란?
근로복지공단이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전문자산운용 기관에 기금 운용을 위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

- 참고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문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콜센터 ☎ 1661-0075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 계도기간('23.1.1.~'24.12.31.)에 적용되던 △ 장시간 정기근로 감독 대상 제외 △ 근로시간 한도 위반 적발 시 추가 시정기간 부여 조치 종료
- 다만, 추가 시정기간은 기업 사정을 고려해 필요시 한시적으로 부여('25.1.1.~'6.30.)



-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24.12.26.)
-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 044-202-7982

산업안전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화

- 폭염·한파(고열·한랭)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주 보건 조치 의무* 부과
* 구체적인 사업주 의무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마련 중(별도 안내)
- 보건조치 위반 시 5~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1억원 이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68조)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25.6.1시행)
-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1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변경

- 인정심사 기준 : 70점 → 90점
- 사후관리 방식 : 인정사업장 20% 선정 → 모든 인정사업장
- 개선확인 : 인정사업장 점검 거부, 지적사항 미이행 시 인정취소
- 참고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 044-202-8923

중소기업 안전일터 조성 지원

사업명	지원분야	지원내용(품목)	지원금액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격차 완화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원가검토비용	최대 1억원 (자부담 50%)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최대 8,000만원 (자부담 50% 내외)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위험기계 방호장치 등 안전설비	최대 3,000만원 (자부담 30%)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시스템비계, 시스템 동바리 등 건설현장 재해예방설비	최대 9,000만원 (품목별 자부담 상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스마트안전 지정품목 37종	최대 3,000만원 (자부담 20%)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환기장치)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최대 5,000만원 (자부담 50~70%)
	온열질환 예방설비 지원	이동식 에어컨 등	미정
산재예방 시설 용자지원	산재예방시설 용자지원	위험작업환경 개선 비용 용자 연리 1.5% (거치3년, 상환7년)	최대 10억원

-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24.12.31.)
- 문의 : 안전동행 지원사업 ☎ 1644-4555, 안전일터 지원사업 ☎ 1544-3088, 건강일터 지원사업 ☎ 1644-8835, 산재예방 용자지원 ☎ 1544-3088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동안전 관리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채용인원 당 매 월 최대 250만원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 동 사업에 참여한 중기중앙회 정회원 대상 운영비 추가지원 예정(별도안내)
- 참고 : 안전보건공단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자료 ('24.12.20.)
- 문의 : 안전보건공단 ☎ 052-703-0769,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02-2124-3272

고용·훈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 (I 유형) 5인 이상 기업에서 취업으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사업주에게 장려금(1년간 최대 720만원) 지급
- (II 유형(신설))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채용장려금(1년간 최대 720만 원) 및 장기근속 인센티브(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 조선평,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부처합동 일자리 TF 선정, '23.7)
-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24.12.31.)
-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4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신규 채용 근로자당 월 30~60만원) 지급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
-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24.12.31.)
- 문의: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2-7218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매출액 감소 등 사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통해 근로자를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참고: 고용24 → 이용안내 → 정책/제도 → 고용정책 → 제도 검색
- 문의: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2-7219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제도를 운영중이며, 정년도래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 지원(3년간 최대 1,080만원)
- (고용지원금) 신청 분기 월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2년간 최대 240만원)
- 참고: 고용24 → 이용안내 → 정책/제도 → 고용정책 → 제도 검색
-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3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ATS*)을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 대상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 원) 지원
*시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24.12.31.)
- 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

- 지역별 고용센터 담당자가 방문하여 사업장별 구인 애로 요인 진단,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인재 매칭 등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 뉴스 → 정책뉴스 (’24.9.25.)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중소기업 근로자 역량강화 지원

- 중소기업 내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담 주치의를 지정하여 기업 HRD역량개발 지원 밀착 관리(최대 3년) 등
- 참고: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소개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 1644-8000

일·가정 양립

[사업주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구분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단축지원금	-	월 30만원 (특례3개월 월200만원) (남성 1~3번째 월 10만원 추가)	월 30만원 (1~3번째 월 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고용+파견사용)	월 120만원	월 120만원	월 120만원
대체인력문화확산 지원금	-	200만원 (3, 6개월 시점 각 100만원)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	월 20만원	월 20만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25.1.1.)
- 문의: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 ☎ 044-202-7474

워라밸/일·가정 양립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취득·사용하는 인프라 투자비용 일부 지원	사업주 투자비용 50~8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유연근무제 장려금	유연근무(재택, 원격, 시차 출퇴근, 선택) 활용 비용 지원	월 최대 60만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시 지원	월 최대 50만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24.12.31.)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근로자 지원]

구분	제도명	내용	시행
임신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임신근로자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고위험 임신질환은 모든 기간)	’25.2.23.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 6일(최초 2일 유급) 휴가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2일 정부 급여 지원	
출산기	출산전후 휴가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월 최대 210만원 지급 ●미숙아 출산 시, 100일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시 20일 휴가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정부 급여 지원, 3회 분할, 120일 이내 사용	
육아기	육아휴직	●1년 6개월*, 3회 분할 가능 *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이거나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1~3월 최대 250만원, 4~6월 최대 200만원, 7월~ 최대 160만원 지급/사후 지급금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12세(초6) 이하 자녀 대상 최대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매주 최초 10시간(상한 220만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24.12.24.)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 7412, 7471

외국인력

2025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총 도입규모 130천명

합계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130,000명	72,000명	2,500명	2,000명	10,000명	8,500명	3,000명	32,000명

※ 제조업: 광업 포함 / 농축산업: 임업 포함 / 서비스업: 음식점업 포함
※ 탄력배정분: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
※ 신규·재입국 인원을 포함한 수치임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24.12.20.)
- 문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044-202-7156

뿌리업종 중견기업 고용허가제 적용

- 제조업(300인 이상) 중 뿌리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에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고용 허용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24.11.21.)
- 문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 044-202-7153

숙련기능인력(E-7-4) 제도개선

- 2025년 발급규모: 3.5만명 (’24년과 동일)
-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요건을 사후에 확인하는(전환 후 2년 내) 특례제도 한시적 운영(~’26.12.31)
※ 단, 가족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만 추가 체류기간 연장
-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장 추천이 있는 경우 전환 체류 요건 완화(4년 → 3년)
- 참고: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 문의: 법무부 체류관리과 ☎ 02-2110-4068,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 02-2124-3282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이진우 |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모두

근로기준법은 동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사업의 영세성과 행정감독 능력의 한계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결국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바 노동분쟁 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법 적용 내용을 대표적인 법 규정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쉽게 말해 1일 평균 근로자 수이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text{상시 근로자 수} = \frac{\text{일정 사업 기간 내 사용 근로자 연인원 수}}{\text{일정 사업 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

‘연인원(延人員)’란, 쉽게 말해 일정 기간 내에 사용된 근로자 총 인원수(정규직, 파트타임, 일용직 등 포함)라고 이해하면 된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총 영업일수가 20일인데, 20일 동안 출근한 총 인원수가 100명이라면, “100명/20일 = 5명”으로 계산되어, 상시 근로자 수는 5명이 된다.

한편, 인쇄업 특성상 동거 친족(가족)끼리 사업을 운영하거나, 동거 친족이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통상근로자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일한다면, 그 동거 친족도 근로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동거 친족을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사업장 내에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고, 다른 근로자와 마

찬가지로 배우자도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1141)”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결국 배우자 등 동거친족이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해고의 제한,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부당해고라 하는데,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제한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해고를 하기 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된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150%의



작가: Macrovector 출처: Freepik

가산수당 규정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22시~06시까지 발생하는 야간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여 발생하는 휴일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이른바 1.5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휴가이다.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존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도의적으로 일부 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도 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들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규정을 살펴보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적용 여부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상술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여 몇 가지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를 체크하고,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어느 규정까지 준수하여야 할지 파악하여, 노동분쟁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구분	적용되는 규정	적용되지 않는 규정
상시 1명 이상~ 상시 4명 이하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주휴수당¹⁾ -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 해고 등의 제한 규정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연차유급휴가
상시 5명 이상~ 상시 9명 이하	- 해고 등의 제한 규정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연차유급휴가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까지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배포의 방식으로 실시 가능
상시 10명 이상~ 상시 29명 이하	- 취업규칙 작성(사내규정) -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상시 30명 이상~	노사협의회 설립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까지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배포의 방식으로 실시 가능

1) 주휴수당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인데,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파트타임(단시간근로자)에서 이슈가 된다.

www.kprint.kr

Kprint

Since 1978

KIPES

28th Korea International Printing Machinery and Equipment Show
제28회 국제인쇄기자재전시회

Klabel

Korea Label Show
한국레이블전시회

Kpack

Korea Packaging Show
한국패키징전시회

Kdigital print

Korea Digital Print & Solution Show
한국디지털인쇄·솔루션전시회

Ktextile

Korea Textile Show
한국텍스타일전시회

Ksign&ad

Korea Sign & AD Show
한국사인·광고전시회

주최
한국이앤엑스
대한인쇄문화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KOTRA / 한국인쇄진흥재단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그래픽기술협회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 대한인쇄연구소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한국출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 한국인쇄학회

미디어후원



참가신청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kprint@kprint.kr



2025
8. 20수
~ 23토
KINTEX
제2전시장 7,8홀



서울 국회 앞(24시간 운영) T.02-786-2999 세종본부 T.044-864-5577 세종청사센터 T.044-868-7636 세종국책연구센터 T.044-868-3537
정부세종컨벤션센터 T.044-868-5582 세종지사(편집·디자인실) T.044-863-7636 충무로 공장 T.02-2274-5944 일산 장항동 공장 T.031-908-9777

특별한
차별된
독특한
멋진
훌륭한
새로운

⋮

세상의 모든 전략
경성에 답이 있습니다

KYUNG SUNG
www.kyungsungmedia.com





딜리와 함께하는, Thank you, green
친환경디지털 인쇄 솔루션

(주)딜리는 다양한 환경과 품질의 국제적인 인증 취득을 통해서 신뢰성을 보증 받았습니다.
철저한 평가와 관리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쇄 산업을 선도합니다.



www.dilli.co.kr

인쇄에서 제본까지 한번에
친환경 초고속, 초고해상도 디지털 수성 인쇄 솔루션 & 전자동 제본기

NEO GALAXY + AUTO BOOK MAKER

수성 디지털 잉크젯 인쇄기

전자동 제본기



“딜리”를 검색하세요!

본 사 | [11303]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로702번길 30 ● TEL : 031-860-5500 FAX : 031-860-5590
서울사무소 | [0560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63 ● TEL : 02-3431-8160 FAX : 02-3431-8159

